

- 주요 뉴스: 미국 4월 구인건수, 예상치 상회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포고문 서명
 - OECD, 금년 글로벌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미국은 트럼프 관세가 경제에 타격
 -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조정에 안내 필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도 예상
 -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8개월 만에 최저. ECB의 금리인하 기대 뒷받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4월 구인건수,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4월 구인건수의 증가,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통화정책 조정에 안내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의 의견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노동시장 개선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강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375.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8.5원, 0.39% 상승). 한국 CDS 하락

		6/3일	6/2일	전일대비			6/3일	6/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70.4	5,935.9	+0.58%	국채 금리 10y	미국	4.45%	4.44%	+1bp
	유럽	548.44	547.92	+0.09%		독일	2.53%	2.52%	+0bp
	중국	3,362.0	휴장	+0.43%		영국	4.64%	4.67%	-3bp
	일본	37,447	37,471	-0.06%	CDS 5y	한국	28bp	29bp	-1bp
	한국	휴장	2,699.0	-		중국	51bp	52bp	-1bp
환율	달러지수	99.26	98.71	+0.56%	위험 지표	EMBI+	-	383	-
	유로화	1.1372	1.1441	-0.60%		VIX	17.69	18.36	-3.65%
	엔화	143.97	142.71	-0.88%		WTI유	63.41	62.52	+1.42%
	위안화	7.1883	휴장	+0.15%	원자재	구리	483.4	485.9	-0.50%
	원화	휴장	1,373.1	-		금	3,353.4	3,381.6	-0.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구인건수, 예상치 상회.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포고문 서명

- 4월 구인건수는 739.1만건으로 전월(720.0만건) 및 예상치(710.0만건)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부문별로는 의료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등에서 크게 증가. 이번 결과는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는 연준의 평가를 뒷받침. 다만, 해고는 전월비 19.6만건 늘어 작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 시장에서는 아직 고용여건이 양호하지만, 해고 확산 및 실직자의 구직 소요 기간 증가 등은 노동시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 특히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4월 공장수주는 전월비 3.7% 줄어 3월(3.4%) 대비 부진한 모습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4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25%→50%)한다는 포고문에 서명.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협상을 벌이는 모든 교역국에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천연
- 일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보낸 서한에서는 중국산 산업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및 공급망을 더욱 신중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
- 백악관은 조만간 중국과 전화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 러트닉 상무장관은 인도와 조만간 무역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OECD, 금년 글로벌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미국은 트럼프 관세가 경제에 타격

- 금년 및 내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모두 2.9%로 제시하여 이전(각각 3.1%, 3.0%) 대비 하향. 무역장벽 강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 확산,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약화,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
- 국가별로는 미국(2.2%→1.6%, 1.6%→1.5%), 중국(4.8%→4.7%, 4.4%→4.3%)이 모두 하향 조정되었고, 유로존(1.0%→1.0%, 1.2%→1.2%)은 보합, 일본(1.1%→0.7%, 0.2%→0.4%)은 각각 하향 및 상향 조정.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진단

■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조정에 인내 필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도 예상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관세가 빠른 시간에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Morgan Stanley는 연준의 금리인하 및 라이벌 통화의 강세 등으로 향후 12개월 기준 달러화지수가 9%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도이체뱅크는 미국 경제 회복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연말 S&P500지수의 목표치를 상향(6150→6550)

■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8개월 만에 최저. ECB의 금리인하 기대 뒷받침

- 5월 소비자물가지수(HCIP)의 연간 상승률은 1.9%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월간 상승률도 0.0%로 전월(0.6%) 대비 낮은 수준. 근원 HCIP의 경우도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떨어졌으며(각각 2.7%→2.3%, 1.0%→0.0%), 이는 향후 ECB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

■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22년 9월 이후 최저. 미국 관세정책 등이 반영

- 5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8.3을 기록, 8개월 만에 경기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또한 이번 결과는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항목별로는 신규 수출수주와 고용 등이 부진.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술적 오류로 수치가 과도하게 악화되었다고 설명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 다만 무리한 인상은 자제할 방침

- 미국 관세정책이 경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으나, 임금과 물가의 연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이에 인플레이션(연율)이 2%를 향해 나아간다면 통화완화 조절을 위해 금리인상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다만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베이지북, 미국 5월 ADP 민간 고용 및 ISM 서비스 PMI
- 미국 5월 S&P 글로벌 종합 PMI, 유로존 5월 HCOB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 경제, 금리 정상화에도 구조적 불안정성 지속 - Financial Times

(Interest rates are normal, the world is not)

-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팬데믹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초저금리 시대는 종료되고 통화여건이 정상화. 미국과 영국의 10년물 명목 국채금리는 '21년 대비 상승(각각 0.9%→4.5%, 0.2%→4.7%)하여 금융위기 이전 평균에 근접
- 하지만 불안정한 세계 경제가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이 리스크 요인. 아울러 미국 증시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하락한 점은 자산시장 과열을 시사. 이에 향후 경기침체 혹은 인플레이션 충격,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

■ 미국의 감세법안, 무역전쟁에 이어 자본전쟁까지 초래할 가능성 - 블룸버그

(Could the Trade War Morph Into a Capital War?)

- 글로벌 자본의 미국 투자는 높은 수익률, 경쟁력 우위의 기술기업, 명확한 재산권 보장의 수혜를 받았으며, 패시브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자본까지 유입되며 자기 강화적 순환(self-reinforcing spiral)을 유도. 이에 미국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가 자국의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트럼프 정책 논리에 따라 대가를 요구할 소지
- 특히 감세법안의 889조는 본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해석에 따라 미국 투자 수익에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여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확대될 여지를 부여(Deutsche Bank). 이는 미국 자산의 고평가 및 과도한 노출 비중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자본의 유출 등을 유도하며 새로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

■ 국제 유가, OPEC+의 증산 체제 전환 등으로 하락세 지속될 전망 - Financial Times

(What is Opec+ up to?)

- OPEC+는 7월 일일 41.1만 배럴의 추가 증산을 발표하여 3개월 연속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 이는 감산 체제에서 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동시에 ▲비OPEC 산유국의 공급 증가 및 수요 둔화 ▲카자흐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할당량 초과 생산에 따른 감산 합의 이행력 약화 ▲트럼프의 저유가 요구 등이 반영
- 이에 금년 4/4분기 글로벌 석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Morgan Stanley). 결과적으로 글로벌 석유시장에 장기적인 공급 과잉 및 유가 약세가 이어질 전망

■ 미국의 잘못된 정책 운용,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 - 블룸버그

(Mismanagement puts dollar's global standing at risk)

- 백악관의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와 이에 따른 수요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산 거품을 유발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은 관세나 인위적인 달러화 절하를 통해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차입비용 절감, 경기침체 시 강력한 재정 여력 제공, 국제무역에서의 환위험 전가, 금융제재 권한 강화, 주조차익 확보 등 분명한 이점을 제공. 다만 정부 부채 확대 및 자산 거품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갖고 있어 재정 규율과 금융규제가 요구

■ 미국 공화당의 균형재정 중시 기조 종료, 재정건전성 우려가 점증 - 블룸버그

(The GOP's Fiscal Hawk Era Is Officially Over)

■ 미국 금융업계의 부채 경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심한 고찰이 요구 - WSJ

(Wall Street Is Sounding the Alarm on U.S. Debt. This Time, It's Worth Listening)

■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실제 물가 상승 보다는 관세가 주요 원인 - 블룸버그

(Inflation Expectations Are Now Just Tariff Expectations)

■ G7의 부채 문제, 불안한 금융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Reuters

(G7 debt is now a pressure point for anxious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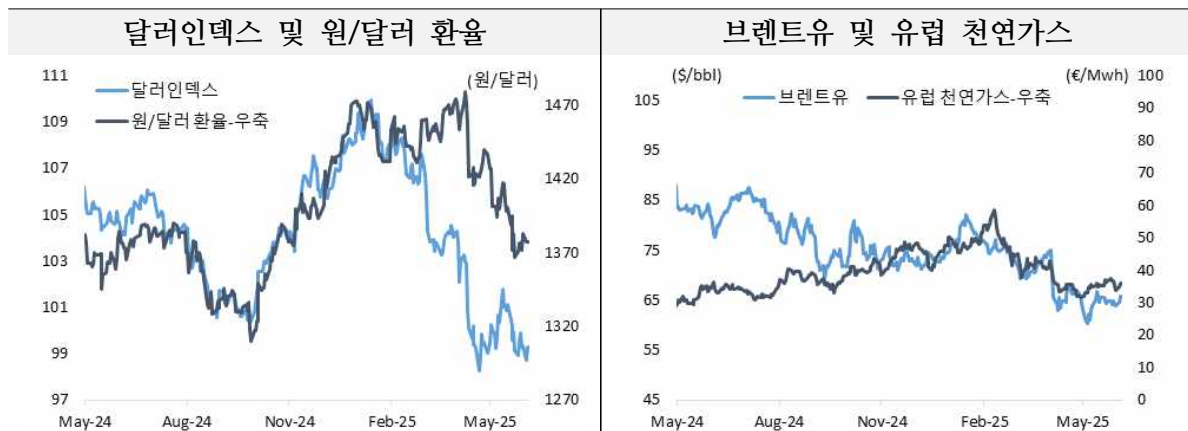
■ OpenAI의 글로벌 확장, 미국 정부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 Financial Times

(The US government has most to gain from 'Open AI fo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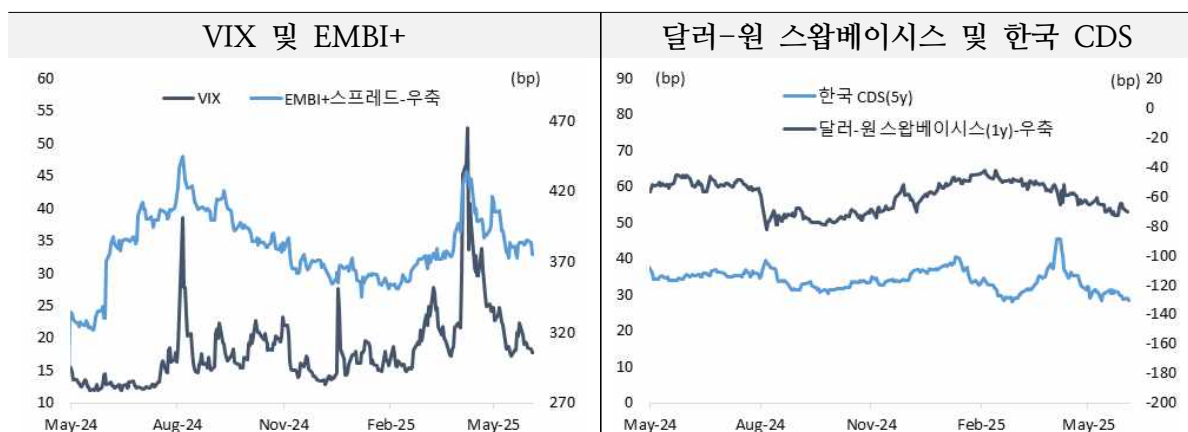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